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책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com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모든 걸 주인공이 한다고 믿으세요

장래에 어머니가 될 사람, 할머니가 될 사람, 또 할아버지가 될 사람, 아버지가 될 사람, 여러분이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당연히 서로 지금 걸어가는 길을 올바르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난날 어떻게 걸어왔든 앞으로 한발 한 발 떼어놓는 그 진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항상 그릇을 비울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놓지 않고 참기만 한다면, 겉으로 내색을 안하고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건 참는 까닭에 항상 그릇이 넘쳐 버리고 담기지 않죠. 그러니 참는 게 아니라 한 발 떼어 놓는 것과 같이 놓으라 이런 소리죠. 이 진리는 지구를 한바퀴 돈다고 하더라도 일본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렇듯이 사람의 인생살이란 게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가는 것이 꼭 정검다리를 밟고 가는 것과 같아요.

**불**교가 어떤 것이냐. 불은 만물만 생의 생명이고, 교는 우리 삶이다 이겁니다. 생명이 있음으로써 몸이 움직여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 생활 속에서 당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해야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가. 저 나무도 싹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기 뿌리를 모르다면 흙에 가려서 무명이 생기는 것과 같죠. 그러듯이 사람은 접대기인 자기에 덮여서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본다면 자기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육체도 없어지고 또 육체가 없다면 생명의 근본도 없어지니 어느 한쪽이 없어도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면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되는가. 내가 항상 말하죠. 일거수 일투족이 다 자기의 몸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선장이 있다고요. 즉 수많은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자기 근본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질이 이 몸을 한치도 쉬지 않고 돌아가게 하니가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다가 어떠한 화나는 일이나 약한 일이나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항상 '화가 나는 것도 내 속에서 나게 하는 거니까 화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되돌려서 돌려 놓으라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를 다 맡아주세요. 닦치는 대로, 일부러 쫓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죠. 내 앞에 닦치는 것만도 천차만별의 일이 있으니까요. 진짜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게 누군가. 대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대신 먹여주고 죽여주고 아파주고 또는 통취주고 잡자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뿌리만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런데 지금은 불교 이라면 어느 부처님 어느 스님 이름이나 찾고 바깥으로 열매나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교인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름도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도 바깥에서 쓰는 방편일 뿐이고, 진짜 내가 나를 이끌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걸 타파할 수 있고, 여여할 수 있고, 자재할 수 있고, 민법을 들고 낸다 하더라도 손색 없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기에 자신부터 알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먼저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섭리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러는 이름을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조차도 그림자와 같아요. 즉 말하자면 든 구름같은 이 몸도 50%는 원다는 얘기예요. 정신적 50%, 물질적 50% 그래서 양면이 100%가 되어야만 이 능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쉬지않고 닦치는 대로 굴리면서 즉 한마디로 요약해서 구정물이 나올 김새가 있을 때만 맑은 물로 바뀌어 쓴다. 이런 도리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기를 여러분의 주장자의 자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모르면 안되죠. 만약 전체를 바깥의 물질계에서만 찾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걸림이 많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 아닌 내가 진짜로 있거든요. 지금 나는 육체가 보이지 않는 진짜 나는 육체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해요.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니까요.

내가 예전에 그랬죠. 정수에 물을 붓는 데가요. 정전에도 있습니다마는 물이라는 건 항상 어떠한 파도가 치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흘러가요. 어떤 것에도 아랑곳없이. 그와 같이 인간의 정수에도 항상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살고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입력이 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입력이



그림 · 최추현

## 물질계만 보지 말고 육체속 참나 찾도록 자기마음 알면 일체 생물·우주 알게 돼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저 지금 현재의 그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놓고 '너만이 지켜주고 너만이 해결하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용도에 따라서 자기한테 닦치는 대로 거기가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짢은 것은 좋은 쪽으로 돌려서 놓는다. 그렇다면 현실에 살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천안통이고 천이통이고 타심통이고 신족통이고 천이통 숙명통이 다 그냥 바로 보이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천안통이 지금 현실에 나와 있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하는 것 말예요. 천이통도 나와 있고요. 전 세계로 전화 안되는 데가 없죠? 앉아서 세계를 보고 들죠. 또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손가락만 깜짝 하면 만나죠. 대문 바깥에서 부르거든 안에서 문 열어서 그때 그 형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사는 현재에 바깥으로 모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진화되

면서 밝아지고 이리한다든 거죠. 지금 악이 많다고 하더라도 선이 반이면 악이 반인 것과 같이 악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니까 지금 주어지는 대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이 토론을 하지는 것은 사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작든지 크든지 자기가 진실로서 어떠한 것이 공명한 것인지 모든 게 자기에 관한 건이니까 그것을 질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모였어요.

아무리 과거에 선조들이 큰스님으로 계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분이 한 거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한생각으로서 그냥 한할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현재에도 참나 참나 나투는 까닭에 공해서 힘이 없다. 그거를 시도해 볼 때에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하는 것과 같고, 움직여지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사는 것도 전

부가 참나 참나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년까지 걸어온 게 어땠으며 한 게 어땠으며 또 나쁘게 한 게 어땠으며 좋게 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고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진장이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광대무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닦치는 대로 얽매어서 애쓰실 말고 자기 근본자리에서 딱 딱 놓고 믿고 가다 보면은 조금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이러면서 체험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앉아서 세계를 보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신통이라고요. 오신통이 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신통도 도가 아니니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소ပါ니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걸음을 걸을 뿐이지 모든 게 한 발짝 떼어놓으면 그냥 없어지고 그런데 팔자 운명이 어디 붙을데가 있었습니까. 불을 것도 없고 담갈 것도 없고, 내가 가는데 간다고 할 것도 없다 이리한다든 그 모두가 해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연기의 공법을 말 하자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이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과 직결돼서 볼 때는 그렇게 과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신통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 했거든. 왜냐? 한 진리이기 때문에, 대뇌를 통해서 정수로 입력이 되는데 새로운 입력을 넣으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는 까닭에 그릇은 항상 빈다 이거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은 자기 자유대로 모습과 권리와 삶을 가지고 나와요, 옷을 벗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인연됐던 인연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인연들, 미생물에서부터 축 형성되고 진화되고 만났다 헤어지고 한 인연들, 그 인연들이 다 자기 근본에 직결이 돼있어서 항상 눈만 깜짝해도, 하다못해 물 속의 고기들도 진화를 해서 인간으로 환토를 한다. 이런 소리예요. 무궁무진한 도리지만 하나를 모르면 열 가지를 다 모르게 되고 하나를 알면은 열 가지가 다 내 앞에 지혜롭게 돌아오게 돼있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뒤 길다 잡다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도 이렇게 안되나' 하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그냥 살되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믿지 말래도 믿어야 되죠. 자기 싹이 자기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 누가 아니다 기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늘 말하지만 스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니예요. 스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고 뜻과 행을 보고 따르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한마음으로써 믿게 됩니다. 자기 마음은 영입니다. 체가 아니예요. 그러니 체가 없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알면은 내 마음도 알게 되고, 일체제불도 알게 되고, 일체 우주도 알게 되고, 일체 생물이라는 건 다 알게 되고 그렇게 직결이 돼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님 마음 좀 내주세요.' 이리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자리에서 다 알아서 관하면 저절로 손살같이 다 할나에 하나가 돼 주죠. 할나에 들고 나는데 뭐가 걱정이었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전부 조절하는 그 행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 명이 있으면 보살이 열 명이 되고 또 백만 명이 있으면 백만 명이 되고 이 허공을 채우면 허공을 채우게끔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람이 할 것이고 생각 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이 허공에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활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마음이 그러했다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자랑하며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범종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권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박으로서, 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범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뵈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뵈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 · 그림/신국환/245쪽/값 6,000원

##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 박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

# 재미있는 불교만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값 각각 5,000원

##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선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퍼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각각 6,000원

##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헌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것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회 그림/값 6,000원